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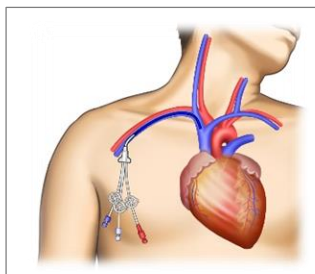
● 감염 자가관리

03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



고열

- 38℃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
- 춥고 떨리는 증상이 있는 경우



중심정맥관 삽입 또는 수술 부위

- 통증, 발적이 있는 경우
- 농과 같은 분비물이 있는 경우



배뇨 관련 문제

- 소변을 볼 때 작열감, 통증이 있는 경우
- 소변의 양상(색, 냄새 등) 이 변한 경우



호흡기 문제

- 기침, 가래,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
-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

항암화학요법 자가관리 감염

ASAN MEDICAL CENTER PATIENT FAMILY EDUCATION GUIDE

서울아산병원 | 암병원 | 암교육정보센터



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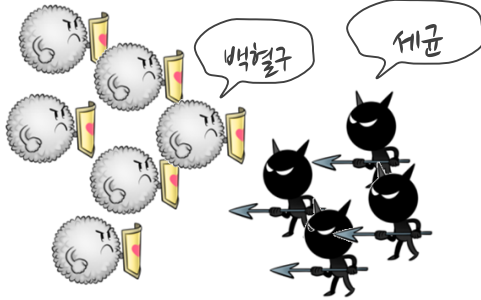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(05505)

대표전화 : 1688-7575

홈페이지 : www.cancer.amc.seoul.kr

감염 자가관리

01 증상은 왜 나타나나요?



백혈구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군대와 같이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백혈구가 감소하면 균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이 떨어지므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.

백혈구 감소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. 약제마다 차이는 있으나, 보통 항암제 투약 7~14일 사이에 백혈구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항암 치료가 끝난 3~4주 사이에 정상으로 회복됩니다.

감염된 부위에 따라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보통 38℃ 이상의 고열, 출고 떨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요로감염이 된 경우 배뇨 시 작열감이나 통증, 호흡기 감염 시 심한 기침이나 가래, 목의 통증 등의 있을 수 있고 소화기 감염 시에는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상처나 배액관 삽입 부위가 감염된 경우에는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나 수술 부위의 부종과 발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감염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열제 복용은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QR 코드를 스캔하시면, 관련 교육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

항암화학요법
자가관리



감염
애니메이션



면역 저하 환자의
식생활 지침서



감염 자가관리

02 대처 방안



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자주 하여 개인 위생을 청결히 유지합니다. 특히 대변을 본 후 손과 항문을 깨끗이 닦습니다.



매 식후와 취침 전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시행합니다.



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생고기나 생선회 등 날음식은 피합니다.



과일과 야채는 깨끗이 씻고 껍질을 제거한 후 섭취합니다. 백혈구 감소가 심한 기간 동안에는 익혀 먹도록 합니다.



멸균 처리가 되어 나오는 과일 통조림, 캔 음료 등의 제품은 드셔도 됩니다.



최근 소아마비, 홍역 등의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감기, 수두 등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.



백혈구 수치가 낮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가급적 피합니다. 너무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갑니다.



화분, 애완동물 등 세균이나 곰팡이가 많은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.



체온계를 준비하여 열감이 느껴지면 자주 체온을 확인합니다. 구내염, 목의 통증,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가글을 자주 합니다.